



요약

사실

돈 보스코의 콘솔라타

양성 여정

취약함을 돌보고 식별하고 통합하기

서로를 알아가기

라 스페지아의 ADMA

규정

10조 - 신심회 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참여 (둘째 부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

예술의 언어, 새로운 의사 소통 방식

가족의 연대기

사실

“돈 보스코의 콘솔라타”

P.1

친애하는 ADMA 친구 여러분,

P.3

우리는 1841년 6월에 돈 보스코가 프란소니 주교에 의해 토리노 대교구 사제로 서품 되었음을 압니다. 몇 달 후, 정확히는 11월 3일에 그는 토리노에 도착하여 사제 기숙사에 거주하며 교육자 겸 목자로서의 그의 양성을 계속했습니다. 이 추천은 그의 영적 지도자인 성 요셉 카파소가 그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P.7

이 거주지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마리아께 봉헌된 마리아 성당이 있는데, 정문 표지판에 적힌대로 “토리노시의 위로자이며 보호자”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로 간주되며 “콘솔라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리노 과리니, 필립보 주바라, 카를로 첼피 등의 예술가들이 작업한 피에몬테인의 바로크 양식의 걸작이자 그리 크지 않은 대성당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우리는 성당 기원에 대한 살레시안 역사와의 연관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P.8

P.9

젊은 사제였던 돈 보스코는 이 성당을 자주 찾았고 1841년 6월 7일 그곳에서 두 번째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여러 곳을 거쳐 1846년, 그는 발도코와 피나르디 소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이 소성당에 존재하는 마리아의 첫 번째 그림은 돈 보스코가 27리라로 구입한 위로의 성모 그림이었습니다.

돈 보스코는 성사를 주고, 일부 종교 의식에서 기도하고 노래하기 위해 토리노에 있는 이 성당으로 오라토리오



소년들을 데려가곤 했습니다. 1846년 7월 돈 보스코가 중병에 걸렸을 때, 오라토리오의 소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갈아 가며 위로의 성모상 앞에서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돈 보스코는 회복되었고 의사는 그에게 “모든 것이 잘 되었으니, 위로의 성모님께 감사하러 가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1856년 11월 25일 밤, 새벽 3시경에 어머니 마르게리타가 자비의 하느님 품에 안긴 것을 기억합니다. 돈 보스코의 형, 요셉은 그의 방으로 갔고 두 사람을 깨우고 울었습니다. 2시간 후, 돈 보스코는 요셉 부젖띠를 불렀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돈 보스코의 친구이며, 그 앞에서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콘솔리타 성전의 지하실에서 어머니를 위해 미사를 집전하러 갔고, 미사 끝에, 두 사람은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돈 보스코는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은 지상에 어머니 없이 남았습니다. 당신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콘솔라타입니다.

매년 6월 20일 토리노 시는 마리아의 보호와 위로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분장 합니다. 돈 보스코는 자신과 대중의 표현으로 토리노의 마리아적인 감성을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신심있는 이들, 친구, 마리아의

자녀들은 교회가 풍부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준 노선에 따라, 동정 마리아께 대한 적절한 공경을 위하여 네 가지 지침, 즉 성서, 전례, 교회일치 그리고 인간학적 지침 (마리아 공경 29이하)을 드러내면서 지역 마리아 신심을 알고 사랑하고 전파하기를 초대받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칭호, 기도와 표현으로 경축될 것입니다. 돈 보스코가 카스텔누오보, 키에리, 토리노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우리도 그의 자녀로서 원죄 없으시고, 도움이시며 위로이신 마리아를 사랑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발도코 ADMA 회장, 레나토 발레라.
발도코 ADMA 영적활성자, 알레한드로 게바라

양성 여정

취약함을 돌보고 식별하고 통합하기

마리아와 함께 가족의 도전을 산다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을 묵상하고 심화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움, 즉 마리아께 유보된 자리를 깨닫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교회문서에서 그 자리는 거의 생략될 수 있는 장식품처럼 끝부분에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작 부분 30항에 배치된다“... 가정들은 아기와 어머니를 관상하도록 초대받았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정이 직면한 도전에 마리아처럼 용감하고 침착하게 맞서며 하느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다(루카 2,19.51 참조). 마리아는 모든 가정이 겪는 경험 또한 당신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계신다. 그래서 가정사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하는 메시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



마리아는 항상 부드러움, 사랑, 기쁨의 형상이시고, 돈 보스코가 모든 신자, 특히 우리 ADMA 회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어려운 순간에 도움이 되신다.

“그들은 마리아처럼 슬프고 흥미진진한 가족의 어려움을 용기와 평온함으로 살아가고 마음에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간직하고 묵상하도록 권고받습니다(루카 2,19:51 참조). 마리아의 마음의 보물에는 또한 그녀가 조심스럽게 보존하는 우리 가족 각각의 모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역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식하기 위해 그것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개하기

이 양성의 여정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도전과 기회를 환영하고 가정을 위한 여정을 다시 한 번 격려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정의 모든 사목적 보살핌과 특히 취약한 상황에 살고 있는 이들을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랑의 기쁨 권고는 8장에 드러난 주제로 축소될 수 없고, 훨씬 더 적절하게 총체적으로 읽고 이해해야 한다. 교황님 자신이 상기 하듯, 그것은 “가정에 살아있는 사랑의 기쁨”에서 시작한다. 이는 제목일 뿐만 아니라 권고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사랑의 기쁨 8장은 또한 ADMA가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성장하도록 촉구한다. 자비의 영성, 환대 및 개인 동반 능력, 성찬 거행에 국한되지 않는 공동체와 전례

생활, 가정 사이에 공유되는 신앙 여정의 현존, 과도한 개인주의로 얼룩진 세상에 대한 빛나는 증거가 되는 상호 지원과 도움 등이다. 여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안한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있다!

다양한 상황과 가능한 선택

두 가지 중요한 이미지와 함께 시작되는 (제목: 취약함을 돌보고 식별하고 통합하기) 사랑의 기쁨 8장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풍부한 원리를 지닌 교회는 모든 시대의 남성과 여성의 길을 밝히고(등대), “위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작은 빛(햇불)이 되어 행동하도록 부름 받았다.

따라서, 앞 장에서 그리스도교인 결혼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명시하고 난 다음, 인내심과 관심을 가지고 동거 부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혼인을 불신!) 또는 사회 결혼에만 연결된 경우를 동반하면서 “

사목의 점진성”을 살라는 초대가 있다 (293-295항). 그것은 각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에서 시작하여, 전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식별 (사랑의 기쁨 296-300항).

그러니 사랑의 기쁨 296-300항에서 시작하여, “비정상적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구체적인 경우와 가능한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주님 안에서 결혼”하도록 이끄는 기쁨에 대한 큰 갈망과 기대가 때로는 폐쇄, 오해, 배신으로 형성된 일상적 선택에 직면하여 깨지는 것을 안다. 사랑의 프로젝트, 자녀의 선물, 삶의 상호 도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다!

오늘날 많은 부부가 이 선택에 이르는 빈도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결과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공동 주택의 상실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함), 그리스도교의 도덕적 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장면을 열어준다.

별거한 사람들을 위한 주된 방법은 혼인 성사 때 받은 은총으로 유지되는 결혼의 유대에 충실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동반한다. 왜냐하면 이 결정은 세상의 눈이 인식할 수 있는 고달픔과 표면상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덕을 증거하고 독특하고 불가해소적인 그리스도인 결혼의 진리를 확증하기 때문이다.

기타 “장면”

그러나 배우자와 헤어진 남자나 여자가 특히 아직 젊은이라면 새로운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이 생기고 새로운 유대의 기회가 생겼을 때, 행복한 사랑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혼자 남겨진 사람은 첫 결혼이 불가해소성에 모순되기에, 그것이 “불규칙한” 유대임을 알면서도 부부 유형(동거 또는 사회 혼)의 새로운 정서적 관계를 시작한다. 그럴 때 다른 장면이 열린다.

모든 의도와 목적에 대해 사법적 경로를 통해 교회 재판소에 혼인 무효 사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중단된 혼인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 이해하는 문제다. 실제로 존재해야 하는 “동의”의 능력이나 자유에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이 길은 “가톨릭 이혼”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진실”

별거한 사람들을 위한 주된 방법은 혼인 성사를 거행할 때 받은 은총으로 유지되는 결혼의 유대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동반합니다.

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진리를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비의 첫 번째 사회적 기준이다!

사랑의 기쁨은 모든 신자들과 사목자들에게 성급한 판단이나 “파문” 선고를 내리지 말고 공동체 생활에 이 형제자매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들의 영적 여정을 돌볼 것을 권장한다!

개인과 사목 식별

사랑의 기쁨 8장은 사랑 (모든 신자의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 사람의 태도의 성향, 회개의 성실성, 새로운 부부 상황의 되돌릴 수 없는 검증을 통해 개인적이고 사목적인 식별을 제안한다. 모든 것은 이 장의 제목에서 이미 제안된 세 가지 태도 즉 “취약함을 돌보고 식별하고 통합하기”에 명시된 교회의 모성적 동반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신자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핵심, “사랑의 길”

우선 새로운 결합에 있는 사람은 “사랑의 계명”에서 시작하여 그 근본적 차원을 살기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그리스도인 삶의 “질”을 검증해야 한다.

이 식별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상기시킨다 (300항). 이러한 태도의 결과로 사제 또는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할 것을 약속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전 결혼과 관련된 회개(298항)와 발생한 피해를 복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가능한 한 더욱 화해의 길을 택하는 의지에 관한 것이다(300항).

아마도 가장 섬세한 식별이 되는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결합의 불가해소성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양쪽 다 입증된 충실성과 관대한 헌신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고해진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298항).





완전한 결혼 이상을 제안하는 데 지치지 않고 교회는 “가능한 최선을 다하도록 박차를 가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위한 여지”(AL 308)를 남겨두고 자비와 인내로 신자들과 동행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성사에 가능한 재 참여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제안한 교리와 관련하여 사랑의 기쁨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지금 어떤 “자비의 길”이 지시되어 있는가? 개인과 사목 식별은 (사제의 도움과 고해성사를 통해) 이전에도 필요했다. 그렇다면?

전통의 “견고한 성찰”(301항)을 반향 하는 사랑의 기쁨은 도덕적 행위의 두 가지 측면을 구별하도록 초대한다. 즉,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과 정황이나 정상을 참작하여 대죄 상태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관련된 사람의 유죄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사목적 식별에서(가능한 멀리) 행동의 책임 또는 책임전가를 평가하려고 할 때 중요하다.

이 때문에 사랑의 기쁨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 속에 살고 있으며 거룩하게 되는 은총을 빼앗겼다고 더 이상 말할 수는 없다”(301항). 조금 더 나아가, “정황이나 정상을 참작하여, 주관적으로 죄가 아니거나 최소한 완전히 죄가 아닌 차원의 죄의 객관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고 사랑하며 은총과 사랑의 삶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305항). 따라서 완전한 결혼의 이상을 제안하는 데 지치지 않으며 (307항에 다시 서술됨), 교회는 “가능한 선을 실천하도록 촉구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위한 자리”를 남겨두고 자비와 인내로 신자들을 동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308항).

사제의 기본 임무와 부부, 봉헌된 사람, 가족 그룹의 참여

이 여정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다. 우리에게 자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할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다. 공동체는 마음을 열고 손을 펼쳐 모든 이가 통합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참여할 때 판단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동행하고 환영하는 능력이 커진다.

사제들은 개인의 동반에 관여하고,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해 그분께 의지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며, 교회의 자비의 얼굴이 되고, 주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을 파악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교회에서 이 여정의 의미를 신자들에게 설명하는 적절한 교리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며, 그리스도인 결혼의 “고상한” 제안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이 여정을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 즉 **부부, 봉헌된 사람, 가족 그룹...**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수립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의 순간을 함께 하고, 고난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이다.

이정 수립

이 개인의 여정을 시작할 기회는 회의, 질문, 설명의 요청에서 생겨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이 이미 사제와 함께 또는 본당에서 여정을 했으므로, 사랑의 기쁨 지침과 관련하여 상황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동반을 청하지 않는 신자들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이 형제 자매들을 찾으러 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아마도 교회 스스로 그들을 멀리하는 데 기여했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시간의 여유, 다른 이에 대한 진정한 관심의 표현, 의견과 공감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태도와 조건으로 표현되는 큰 감수성과 인간성이 항상 필요하다.



몇 줄로 예시하기에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맞게 이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모든 사람은 본당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된다. 그래야 모두는 본당 사제가 성사에 다시 참여할 다음 단계의

시간이 언제 무르익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교회 여정의 도착 지점이며, 자비로운 양보도 아니고, 더구나 일부 사제의 “넓은 소매의” 재량도 아니다!

결론:

“가족으로 걸어갑시다, 계속 걸어갑시다!”

사랑의 기쁨 권고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정과 공동체의 여정을 쇄신하기 위해 매우 풍부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 사목 카드의 기회가 ADMA의 모든 회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날 모든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헌신과 일치된 행동을 새롭게 하기를 바란다.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점점 더 많은 것이다. “우리 한계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과 친교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사랑의 기쁨 325)



개인과 그룹의 성찰을 위하여

- 1) 우리 가정... 본당...은 혼인 성사 준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2)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살고 있는 부부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원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 3) ADMA 회원으로서 우리는 가정에서의 삶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증거가 담긴 힘을 알고 있습니까?
- 4) 우리 신심회는 훌륭한 부부와 가족의 성소를 복음화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친절하고 지적인 환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 5) 우리 본당에서 만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하여, 흠숭의 기도 안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서로를 알아가기

라 스페지아의 ADMA

우리는 살레시오 사제들의 사업 옆에 그리고 눈의 성모 분당에서

라 스페지아의 ADMA가 걸어온 여정에 대해 여러분에게 최근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6년 돈 카메로니와의 첫 만남과 지안루카, 레나토와의 만남 이후, 베라 그리타의 시복조사가 시작될 즈음에 제노바와 사보나의 ADMA와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

그 동안 우리는 팬데믹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두 번의 월간 약속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 매월 24일 목주기도
- 매월, 먼저 돈 카메로니가 교리교육과 함께 하는 양성, 그 뒤를 이어 돈 카렐리와 돈 알레산드로의 다른 경험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24일 목주기도를 오라토리오 소성당에서 바쳤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나서 현재 우리는 본당의 성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평균 50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체 현시로 연결합니다.

양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월 두 번째 일요일에 다음과 같은 계획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 오후 3시 노래와 기도로 시작
- 3시 15분 비디오-교리 교육
- 4시 나눔
- 5시 목주기도 (때때로 성체 현시 포함) 및 고해성사
- 6시 미사

때때로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멈춥니다!

우리는 숫자에 기복이 있었지만, 총 14명의 아이들과 함께 8커플의 "단단한 나막신"이 항상 존재합니다!

로레토의 sdb돈 파브리시오를 영적 활성화자로 모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라 스페치아의 수호성인 성 요셉 축일에 우리는 sdb 관구장 돈 스테파노 아스페타티로부터 정식 설립의 공식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24일 목주기도와 돈 보스코의 3일 기도 활성화를 위해 ADMA 가족의 부부와 자녀들로 구성된 작은 음악회를 만들었으며, 연중 5월 성모 성월과 주요 전례 시기에 예배와 목주기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CEP에 헌신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생생한 기도의 많은 순간은 링크: 에서 **“돈 보스코의 기동”**이라는 제목의 분당 페이스 북 페이지에서 **스트리밍으로 공유합니다.**

개별적으로 각 구성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살레시안 사업의 활동에 기여합니다:

- 어린이를 위한 그리스도교 입문의 교리 교사
- 성인 예비자 교리 여정의 동반
- 혼전 과정에 있는 약혼한 커플의 준비

최근에 한 부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ADMA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 전국 본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많은 나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도움이신 마리아의 발치에서 함께 성장하려는 열망은 대단합니다!

파트리지아와 다비데 팔롬보



규정

10조 - 신심회 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참여 (둘째 부분)

“지원자의 신심회 가입은 평의회와 함께 회장이 승인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모임과 더불어 일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 시간이 선행될 것입니다. 지원자는 도움이신 마리아를 경축하는 미사 중에 신심회에 자신의 가입 의사를 표현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규정, 회원증, 소속 배지가 제공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신심회는 각 회원의 헌신과 몰두와 참여로 번창합니다.

- 각 지역 그룹은 ADMA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과 의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동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새로운 회원들의 가입은 도움이신 마리아의 지속적인 은총에 대한 연합의 활력과 응답의 표현입니다.
- 준비 여정은 또한 규정 연구의 심화를 통해 연합 정신을 알기 위해 강렬하고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 평의회와 함께 회장이 승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신심회 가입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들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 ADMA에 대한 접착의 표현은 형제들을 섬기는 데 자신의 생명을 바치려는 의도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도움이신 마리아를 기리는 축하 행사 중에 발생합니다.
- 그룹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그룹 또는 토리노의 프리마리아 ADMA와 연결됩니다.
- 지역신심회는 규정과 조화를 이루고 관구 평의회와 프리마리아 ADMA와의 친교 안에서,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평생 양성을 돌봐야 합니다.
- 각 회원은 관대한 애덕의 정신으로 기부금을 기여하도록 초대받았으며, 특히 신심회 전체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안드레아와 마리아 아델레 다미아니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

예술의 언어, 새로운 의사 소통 방식

다음은 사회 커뮤니케이션 SDB총 평의원 질다시오 멘데스 신부가 “의사 소통자,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라는 주제로 쓴 여섯 가지 기사 중 다섯 번째 기사이다: “의사 소통자,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내적 순례, 의사 소통 예술에 대한 지혜”.

예술의 언어, 새로운 소통 방식 프란치스코는 매우 인본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르네상스의 모든 활력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지닌 학문적 환경에서 살았다. 프란치스코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했다. 문학에 대한 지식을 통해 그는 자신의 언어,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애정 어린 글쓰기 스타일을 개발하고 창조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은 문화 구조에 큰 충동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고대의 예술에서 영감을 얻은 르네상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의 성장을 위한 비옥한 분야이다.

그의 능력과 개인적인 관심을 통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문학, 시, 그림과 음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고, 따라서 그의 뛰어난 예술적 감수성을 표현하고 예술의 아름다움, 규율과 의미를 그의 문화적 영적 형성에 통합했다.

프란체스코는 그의 영성 내면에서 예술적 경험을 산다. 그의 글의 일부 구절에서 그가 어떻게 그림, 문학, 음악과 시에 매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단순히 학문적이거나 문화적 취향이 아니다. 예술은 생각하고 느끼고 기도하고 글을 쓰는 그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모랜드 워스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술가들이 찍은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그의 목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안에서는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동시에 독자에게 그의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을 감지한다. 그가 말하기를, 예를 들어, “눈부신 그림의 조화는 새로운 색상의 추가를 견딜 수 없다”(C 152) 그리고 “작은 공간에 수많은 캐릭터를 표현하는 캔버스와 프레스코화(벽화)에는 항상 보고 주목해야 할 무언가의 그림자, 윤곽, 축소, 비틀림이 있다”(S II 33). 더욱이 회화는 신성한 예술이 아니겠는가? 하느님의 말씀은 듣는 수준뿐만 아니라 보고 심미적으로 관상하는 수준에도 자리잡고 있다: 하느님은 화가이시고, 우리의 신앙은 그림이고, 색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빛은 교회다(C 145)”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또한 노래와 음악을 사랑했으며 개인적이고 전례적인 기도를 돕기 위해 전례 안에 아름다운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워스는 다음과 같이 관찰한다: “그가 교리 시간 동안 성무 일도를 노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대성당에서 무엇을 노래했는지 알고자 한다”. 그는 아가의 한 구절을 노래로 부른 의식이 있었던 다음 날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아, 어제 우리 성당과 내 마음 속에 이 모든 노래가 얼마나 잘 불러졌는지!” (L IV 269).

작가이자 단어의 예술가인 성 프란치스코는 편지, 전례, 음악, 시를 통해 예술적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프란치스코는 또 종교적인 시도 쓴다. 1598년에 그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에 관한 시를 썼다.

**주님, 저희는 보았습니다, 빛나는 태양보다 무한히 맑은 이 얼굴을
찬란한 태양보다 몇 배나 밝음을
대낮에 더 강하게 밝아지면
우주는 그 빛나는 눈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몸이 그러하다면 얼마나 더 빛날까요
당신 마음의 영광, 경이로운 마음
행복으로 가득하고, 위대하고 풍부하며,
첫 탄생부터,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은 바깥으로 퍼지는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옷 위에 빛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빛나는 눈처럼 희고 얼마나 금빛으로 반짝이는가
하늘이 못 보여주는 것을 저희 눈에 보여줍니다.**

**오! 그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음을 누군들 의심 하리오
겸손의 옷을 입은 종 위에
세상의 모든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옷을
존중하고
그 옷으로 그분께 결합되어 있습니까**

**어서 해봐요! 그 엄청난 영광에 감탄하는 당신
그대의 하느님과 그 행복한 머리는 띠를 맨다오.
그만큼 영광의 값이 높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것은 오직 겸손만으로 값을 수 있습니다 (O I 106-107).**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

예술에 대한 그의 비전을 영성에 적용하면서, 성 프란치스코는 글쓰기의 구성을 통해 의미, 색상, 소리를 가진 단어를 선택하고 단어를 그들의 상징과 관련시키는 길을 열어 감성을 단어와 연결하는 언어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훌륭한 스토리텔러다! 우리가 알다시피 설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미지, 은유, 신화, 종교 그리고 문화적 요소를 사용하여 편지, 이야기, 문학, 담화를 통해 사물과 경험을 말하는 것이 특징인 의사 소통 방법이다.

이야기하기는 단순하고 인간적인 언어를 선호하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 깊이 관여하며, 줄거리와 서술된 이야기에 참여하는 독자에게 유리하다.

논리적 전제와 결론을 가진 공식에 의존하는 개념적 본문과는 달리, 이야기하기는 보다 비공식적이고 비유적이며 상징적인 언어를 따르므로, 개인이 그 경험과 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것에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영적 동반에 있어서, 성 프란치스코는 그 사람의 이야기, 하느님에 대한 체험에서 출발하여 경청의 예술을 사용하는 법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Link: [예술의 언어, 새로운 소통 방식](#)



가족의 연대기

하느님의 종 베라 그리타의 조사: 교구 조사가 끝났습니다



살아있는 감실 운동의 창시자, 하느님의 종 베라 그리타에 대한 교구 조사가 2022년 5월 15일 일요일 사보나에서 종료되었습니다.

바르바라와 저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즐거움을 누렸고 이 인물을 조금 더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르바라는 “재판”에서 돈 피에르루이지를 도왔기 때문에, 성덕의 심문을 뒷받침 하기 위해 수집된 수많은 증언을 듣고 기록했는데, 이제는 로마에서 성인들의 조사를 위한 부서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에 우리는 베라가 살았던 도시 바라제에 오라토리오에서 돈 페에르, 마리아 리타 (살아있는 감실에 관한 연구 센터장), 젊은이들과 모임을 가졌으며 일요일에는 사보나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명예 주교의 현존과 베라를 위한 (ADMA를 위해서도!) 또 다른 중요한 장소인 자비의 성모 성지에서. 우리는 축하의 순간으로 결론을 맺었는데, 주교, 이 과정에 참여한 모든 팀, 오라토리오 책임자 (평신도에 의해 완전히 관리됨)와 모든 젊은이, 플라야 신부와 협력자들의 대표자인 도메니코 니구엔이 참석했습니다 (베라는 협력자였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경험의 기쁨과 이 만남, 베라의 인물과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감을 준 것에 대해 개인적인 짧은 반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데려가라”는 예수님께서 내적 말투에서 베라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 있는 감실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모셔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모든 만남 후에 살아야 할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모든 형태의 사명, 사도직 또는 봉사의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살아 있는 감실”인 마리아께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합니다.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모든 순간, 일상에서 항상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의 생각, 말, 지적 능력, 우리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 상처와 약점, 관계의 내면으로 예수님을 모셔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기, 우리의 경계, 개인적이고 친숙하고 이론적인 방식으로 살았던 신앙에서 떠나 예수님을 모셔갑니다.

신심 주의, 종교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어떤 형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예수님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정체성과 여정의 많은 부분을 듣고 다시 읽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집에 있는 것처럼 느꼈고, 어떤 식으로든 가족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카리스마와 성체와 마리아의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마리아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고, 발견할 모든 여정에서 ADMA로서 우리를 다시 참여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바라와 레나토 발레라

북부 아르헨티나 ADMA의 회장들/관계자들의 연례 회의

5 월 7 일과 8 일, “아르헨티나 북부 ADMA의 회장들/ 관계자들의 연례 회의”가 2 년 간의 온라인 모임 끝에 대면으로 개최되었다. 회의의 주제는 “마리아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한다”였다. 행사에 많은 참여자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지역 ADMA와 아르헨티나 관구 ADMA의 전체 평의회가 대표했다. 서로를 직접 보았고, 성 요한 보스코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마리아의 모성적 현존을 느꼈으며, 우리 모두는 기쁨이 가득 찬 마음으로 떠나갔다. 도움이신 마리아와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경배의 명칭 아래 그 신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발도코에서 우크라이나인들과 젊은이 프리마리아 ADMA의 만남



3 월 27 일 토요일, 바르셀로나 - 스페인 지역에 (카탈로니아, 발레아레스 제도, 아라곤) 있는 살레시오 가족의 다양한 그룹이 마침내 전염병 이전부터 준비한 축제를 거행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로카포르트의 살레시안 사업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는 이날의 주요 기획자이며 활성자였다. 그것은 살레시오가족의 관구 대표인 루이스 페르난도 알바레스 신부가 집전한 그 크고 아름다운 성당에서 성찬례로 시작되었으며, 돈 보스코 자신, 마리아 마자렐로와 맘마 마르게리타를 대신하는 인물들이 “참석”했던 제도적 행위가 뒤따랐다.

그들은 참여 그룹인 SDB, FMA, 살레시오 협력자, 자원봉사자, 졸업생, 살레시오 청년 운동 그룹들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소개했다. 스페인 ADMA 전국 조정 위원장인 라우라 바르네토 부인의 실제적이고 생동감 있는 현존과 스페인 FMA 새 관구장의 화상 참석은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젊은이들은 학교의 넓은 운동장에서 다양한 게임으로 발도코 스타일의 “축제 오라토리오”를 조직하여 기쁨의 순간을 갖기도 했다. 사진에서 우리는 이 형제적 축제가 얼마나 긍정적인 것인지 강조한 여러 그룹의 대표자들을 함께 볼 수 있다.

케냐 - 동아프리카 최초의 ADMA 센터: 자이코니 본당

첫 번째 영적 활성화자인 폴 루세노 신부의 부성적 지도 아래 2016 년에 87명의 지원자 첫 그룹의 양성이 시작되었으며 2019년에 이에 상응하는 서약을 했다. 현재까지 본당의 9 개 다른 선교소에 속한 96 명의 지원자와 242 명의 ADMA의 서약 회원이 있다. 그들의 평생 양성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규정의 스와힐리어 번역본과 ADMA의 주요 문서에 의해서도 지탱된다.

현재 자이코니에 있는 ADMA 그룹의 영적 활성화자는 살레시오



공동체의 원장이자 본당 사제인 페테르 무고 신부이고, 다른 세 명의 돈 보스코의 아들들이 그의 사명을 돕고 있으며 모두가 본당의 광대한 영토에서 복음화와 청소년 사목에 전념하고 있다: 10,000명의 가톨릭 신자와 24개의 선교소가 주변 언덕에 흩어져 있는 본당이다. 이 “발견”으로 ADMA는 동아프리카 지방의 4개국 (케냐, 수단, 남수단, 탄자니아) 에 존재하는 살레시오 가족의 10번째 그룹이 된다.

도움이신 마리아 전용의 새로운 전 세계 웹사이트 개설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열심히 권고하십시오”: 이것은 돈 보스코의 주요 전달 사항 중 하나였으며 세계의 모든 살레시오 집에서 하나의 현실입니다.

살레시오 가족의 창시자인 돈 보스코는 그리스도인의 도움으로 동정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장려했습니다. 1862년에 돈 보스코는 조반니 칼리에로에게, “동정녀께서는 우리가 도움이이라는 칭호로 당신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너무 슬퍼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신앙을 보존하고 수호하도록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썼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또 돈 보스코의 신호로 마리아 공경을 위해, 5 월 24 일 부터 홈페이지 주소: <https://ausiliatrice.org> 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수천 명의 신자들이 자원, 기도, 성찰, 메시지, 기타 이니셔티브의 공유를 통해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기르기 위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진열장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 뒤에는 전 세계의 양성하는 살레시오 가족 그룹,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ADMA), 그리고 ADMA의 세계 영적 활성화자인 살레시안, 알레한드로 게바라 신부의 직접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공간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마리아의 자녀로 만드신 위대한 선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돈 보스코의 방식으로 받아 들여지고 전달된 우리의 마리아 신심을 새롭게

하는 기회이며, 우리를 모으시고 만나게 하시는 성모님 주위에 모이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열 달 이상의 성찰과 실현 끝에 생겨난 이 계획에 대해 살레시안을 공유하며, 돈 보스코의 카리스마와 사도직에서 영감을 얻은 32개 그룹 모두의 점점 중 하나를 축하합니다. “도움이신 마리아께서 이 진열장이 고안된 만큼, 살레시안을 느끼는 모두를 위해 연결 고리 역할을 하신다”고 그는 덧붙였다.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 (.doc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